



WORKS OF LANDSCAPE

## Tree Museum

나무박물관

**Design** \_ Enea Garden Design  
**Location** \_ Buechstrasse 12, Rapperswil-Jona, Switzerland  
**Area** \_ 75,000 m<sup>2</sup>  
**Completion** \_ 2010. 6.  
**Editor** \_ Kim, Se Young  
**Editorial Designer** \_ Kim, Sa Rah  
**Translation** \_ Kim, Se Young







© Enea



© Enea

● Zurich 상류 근처에 위치한 75,000㎡ 규모의 나무박물관은 타원형의  
로서 몇 개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공간들로 나누어져 있다. 박물관 내에는  
이면서 나무 수집가로 유명한 Enzo Enea의 수목들이 개별적으로 식재되어  
나무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Enzo Enea의 수목들을 통해 이곳을  
들이 공간이나 시간과 같은 삶의 원시적인 속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대의 숨쉬는 나무의 완벽한 전령에 어떻게 뿌리박혀 있는지에 대해  
특, 나무의 우수한 존재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희귀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식재수목  
세열(공작단풍(*Acer palmatum* 'Dissectum Atropurpureum') - 수령 130년  
단풍나무(*Acer palmatum*) - 수령 60년  
살랑지쑤련(가장)(*Magnolia soulangeana*) - 수령 75/80년  
파로시아피사기(*Parrotia persica*) - 수령 60/70년  
아코니티플러움 단풍나무(*Acer japonicum* 'Aconitiflorum') - 수령 40/50년  
유럽 들느릅나무(*Ulmus minor*) - 수령 34/40년  
서양주목(*Taxus baccata*) - 수령 80년



© Martin Rutschli

나무박물관을 만들게 된 것은 수 년 동안 나무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나무를 식별하고 다루는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했던  
조경가 Enea의 작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확장된 결과이다. 나무는 단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기반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 내는  
가장 특별한 창조물로서 숭배와 존경심을 서서히 깨닫게 해 주기도 했다. Enea는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그간 수집해 온 나무를 나무박물관에 기증하면서 자연에 대한 보존과 보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옥외공간의 시공 컨셉은 나무를 선별하여 독립적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이는 방문자들이 식재된 나무를 중심에 놓고 조금 떨어져서 그 주변을  
걸게 되면 여러 각도에서 감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rlin Rutsch



©Martin Rutsch



arlin Rutsch



©Martin Rutsch

쿠바박물관을 감상하면서 나타나는 '경험'과 느낌들은 사람이 함께하는 조경, 간격과 비율의 효과, 질감의 다양성, 나무 주변으로 생성되는 기후, 나무의 장엄한 등 각각 다른 요소들에 의해 창조되어 하나가 된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나무들에게서 양 주목할 만한 감동적인 특징 중 하나는 나무의 나이이다. 자연과 환경에 대한 감동과 존중, 그리고 '노린 삶'에 대한 욕구의 자각은 쿠바박물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요소이다. 박물관이 가진 정신과 특별한 장소성은 그것이 비록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원시적인 깨달이라도 그것을 표면화하도록 도움 것이다.



©Martin Rutsch

나무박물관에는 25종 이상의 수종을 대표하여 약 50그루의 나무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몇 그루의 수목들이 전시되었다. 정신없이 바쁜 우리 시대에 더욱 가중되는 '시간'의 불멸과 인식의 분위기가 곳곳에서 느껴지면서 나무박물관은 조용한 사색과 관찰의 장소가 된다. Bonsai 형태의 고대 미술에 영향을 받은 섬세한 기법들은 나무를 이식하고 보호하는데 적용되었다. 다른 100그루의 나무들과 식물들은 나무박물관을 둘러싸고 있는 공원 내에 식재되며, 향후 조경과 공간의 연구소로 사용될 것이다. ■ **가디언** Enea Garden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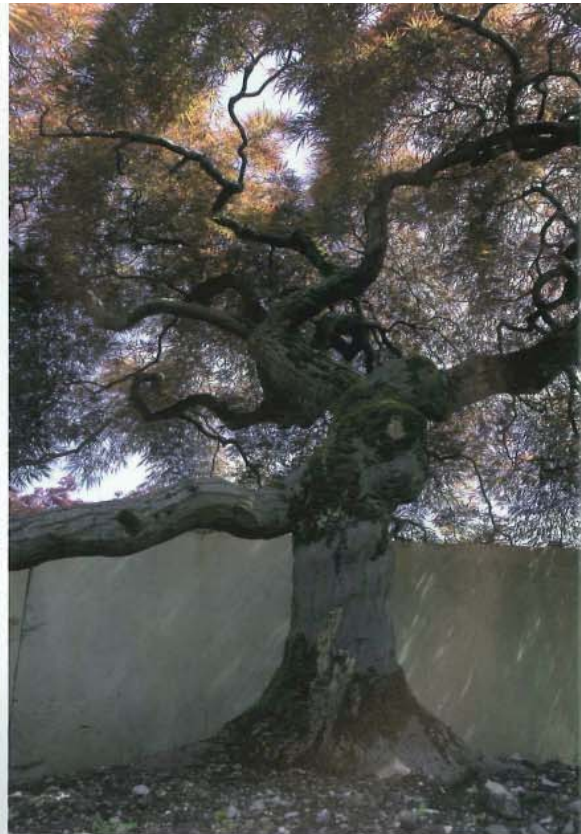








©Enea



©Enea

Tree Museum situated on 75,000 square meters of land near Upper Lake Zurich, will officially open its gates. Conceived as an oval-shaped, open-air museum which is divided into a series of 'rooms', each with their own atmosphere and character, the Tree Museum will exhibit individual trees from the collection of Enzo Enea, the Swiss landscape architect and a prominent tree collector. The Museum's first mission is to emphasize the exceptional presence, beauty and rarity of the exhibited trees, while on a second, deeper level, Enzo Enea's installations will help shape visitors' perception of primordial attributes of life such as time and space, and how these are so intrinsically embedded in the very quintessence of these ancient, venerable trees.

The idea of creating a tree museum was a natural extension to Enea's work as a landscape architect as many years of intensely observing and studying trees combined with an increasing understanding of how to sense and handle them not only provided the foundation for his installation in the field, but also instilled in him a boundless admiration and respect for these most extraordinary creations of nature. In order to share these experiences with a wider audience, Enea decided to indeed dedicate a "Museum" to his trees, thereby implying that they are equally worthy of the care and attention we usually reserve for objects in such an environment. His concept of constructing open-air 'spaces'- characteristic of all Enea gardens- allows for trees to be singled out and to become 'individuals', as visitors are led to walk around these trees and to observe them from different angles.

The 'experience' and sensation evoked by a visit to the Tree Museum will be one created by a multitude of different elements including the magnificence of the trees themselves, the microclimate they create around them, the variety of textures, the effects of spacing and proportions and the landscape architecture in which they are embedded. However, one of the most remarkable and touching characteristics of most trees on view is their age. The awakening to a need for 'slow life', and respect and admiration for nature and the environment are key elements evoked by the Tree Museum. Its spirit, its genius loci, will help to 'externalize' whatever it is these ancient shapes reflect in our subconscious.

The Museum will feature approximately 50 trees representing more than 25 varieties, and showing several examples which are more than 100 years old. An aura of immortality and an awareness of 'time'- even more pressing in our world of hectic, no-time behavior-become omnipresent and the Museum a place of quiet contemplation and observation. Sophisticated techniques influenced by the ancient art of Bonsai shaping were applied to transplant and preserve the trees. Another 100 trees and plants are located in the Park which surrounds the Tree Museum, which will furthermore also serve as a landscape architecture and space laboratory.

Text & Material Enea Garden Design



©Martin Rutschli



©Martin Rutschli